

“10일 걸리던 업무가 1~2일로”

GIST, '2026 행정 AX 혁신대회' 개최 구성원이 직접 만든 AI 행정 혁신 모델 선보여

- 업무효율화·데이터 기반 운영 분야서 AI 활용 성과 발굴... 우수사례 8건 선정·시상
- 재무 결산 10일→1~2일평가보고서 수개월→며칠로 단축... 24시간 학사 챗봇 등 서비스 개선 성과
- 검증된 우수 사례는 실제 행정 업무 적용 검토... 대상팀에 'CES 2027' 참관 기회 제공



▲ 8월 11일(화) GIST 행정동에서 열린 '2026 GIST 행정 AX 혁신대회' 시상식에서 임기철 총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8월 11일(화) GIST 행정동에서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 8개 팀을 시상하는 '2026 GIST 행정 AX* 혁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 개발에 의존하기보다 행정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AI 활용 방안을 직접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을 접목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GIST는 AI 전환(AX)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발맞춰, AI를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GIST형 AX 행정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AI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트랙1'과 선별된 전략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성과

를 검증하는 '트랙2'를 연계한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 15일(수) 열린 트랙2 발표평가에는 반복업무 자동화와 문서작성·규정 검토 등 업무 절차를 개선을 목표로 한 '업무효율화 분야' 6개 팀, 수요 예측과 위험 요인 탐지 등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데이터 기반 운영 분야' 2개 팀 등 총 8개 팀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실제 업무 성과와 혁신성, 재현 가능성, 조직 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AI 평가보고서 자동 생성 시스템'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AI 동료(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행정 혁신'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능동형 게시판 G-크루저(Cruiser)' ▲'학사 행정 AI 챗봇 도입' 등 3개 과제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생성형 AI 기반 국·영문(Bilingual) 행정 안내 프로세스' ▲'국외출장 서류 누락 제로 AI 어시스턴트 사전 검증 시스템' ▲'AI 시간외근무 확인 시스템' ▲'HR 인사이트 대시보드: 커서(Cursor) 협업 HR 시공간의 재구성'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매월 진행하는 재무 결산 업무의 소요 기간을 약 10일에서 1~2일 수준으로 줄이고, 수개월이 걸리던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기간을 며칠 수준으로 단축한 사례가 소개됐다. 국·영문 행정안내문 작성 역시 건당 수십 분이 소요되던 업무를 수 분 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진 교내 공지를 매일 아침 한 통의 이메일로 통합 제공하고, 재학생이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해 24시간 학사 문의에 응답하는 AI 챗봇을 구축하는 등 구성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도 선보였다.

최우수상팀 참가자인 재무팀 서충완 선임행정원은 "비전공자라도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선 의지만 있다면 AI를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상팀 참가자인 공과대학 주영현 행정원은 "자동화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도구"라며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복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업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GIST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검증된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증된 우수 사례는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실제 행정 업무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임기철 총장은 "AI 전환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라며 "이번 대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일상적인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팀에는 대상 70만 원, 최우수상 각 5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대상팀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7' 참관 기회도 제공된다.